

화순 지역 최초 사회복지관 운영

나드리노인복지관 1일 개관식 봉행

전남 화순 지역 최초의 사회복지관을 불교계가 운영하게 됐다. 사회복지법인바라밀(이사장 원고)은 3월 1일 화순군으로부터 위탁 받은 나드리노인복지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원고 스님, 도제 스님(송광종합복지관 관장), 정행 스님(운주사 주지)과 전완준 군수, 주승현 화순군의회회장을 비롯해 지역 노인회 회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고 스님은 기념사에서 “화순군 내 400여 노인정만으로는 1만 3700여 명의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노인 복지는 오늘날의 풍요를 이루게 한 이들에 대한 후세들의 양심이다. 화순 지역 소재 사찰들과 신도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말했다.



원고 스님(맨 왼쪽) 등 내빈들이 나드리노인복지관 개관 기념식수를 하는 모습.

복지관 김재진 관장은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화순군 노인복지 선보이겠다. 특히 물리치료와 운동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지관은 한글·서예교실, 정보화교육, 풍물·국악교실,

댄스·노래·요가교실, 노인일자리, 짬짬방, 급식, 물리치료, 노인 상담, 재가노인·경로당 집수리 지원사업, 건강·취미·생활 지원 사업과 방문간호, 지역특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한 나드리노인복지관은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지 2141평(6912㎡), 건평 843평(2788㎡)의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나

비묘양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1층에는 짬짬방, 물리치료실, 식당, 진료실, 2층에는 평생교육실, 건강증진실, 상담실, 대강당 등이 갖춰졌다.

복지관에서는 13명의 사회복지사가 500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월대보름 맞아 고창군 사회복지관 복운 축제 개최

지난 2월 28일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10 정월대보름맞이 복운(福運)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운영위원장인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관장 무궁 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등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제에서는 웅진코웨이와 미스터 피자 등 후원한 사찰의 교복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북 공연, 마술쇼, 판소리 공연, 카테일 쇼, 율놀이대회, 세대공감 도미노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무궁 스님은 “경인년 새해 고창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지역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 가정은 ‘우리 이웃 우리 가족’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열린강좌 개최

다문화가정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불교계의 지원법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지역 불교외국인단체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아시아방송공동체(대표 도제, 김상사 주지),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대표 정선, 대광사 주지)와 공동으로 오는 3월 25-26일 오후 7시 ‘정보에 피는 무지개나무’를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광주 KT정보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5일 불교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 26일 포교원장 해충 스님의 강연, 아시아전통차 시음 등의 행사를 마련해 다문화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성 센터장은 “소의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우리 이웃이며, 우리 가족이다. 이들에게 삶과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실패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며 “대부분이 불자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한국불교계가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법회에 참가하는 수익금 전액은 6월 열리는 ‘다문화가족 국내결혼식’과 ‘결혼이주여성부모 한국방문 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다문화가족 국내결혼식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무료결혼식을 진행해 준다. 친정 부모 한국방문은 외국의 친정 부모를 한국에 초청해 만남을 주선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난해 개최했던 행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 뵈고 싶었습니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광주의 상징을 꼽으라면 단연 무등산이다. 무등산에는 한국의 큰 성인으로 알려진 원효(元曉)와 의상(義湘), 그리고 윤필(潤弼)스님과 어울어지는 선녀의 사시공양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성봉(三聖峯) 중 하나로 원효 스님이 강건한 사찰로 알려진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을 찾았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산기슭에는 안개가 드리워져, 무등산 성인들 이야기가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현지 스님은 속세에 대한 고민이 컸다. 최근 4대강 사업장 중 하나인 영산강 보 설치 현장에 다녀온 이후 생긴 시름 때문이었다.

“정부가 영산강 뱃길을 복원하고, 보(堰)를 설치한다기에 작은 가르막으로 생각했다. 가보니 거대한 댐을 만드는 것 같다.”

스님은 현실·사회·불교에 대한 고민을 함께 안고 사는 대중보살이다. 현지 스님은 현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하 광주생명나눔)과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주겨레하나)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소아암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더 잘 알려진 광주생명나눔은 현재 광주지역 민간사회단체 중 우수단체로 인정돼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남대의대병원과 조선대의대병원에서 백혈병지원사업과 차봉사, 헌혈은행,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은 오래전부터 펼쳐온 광주생명나눔의 대표적 활동이다.

스님의 또 다른 사회활동은 통일운동이다. 광주겨레하나는 2005년 북한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 보내

기 운동(광주전남지부 1억 5000만 원 상당)을 시작으로 광주전남농민연대와 공동으로 통일쌀(63톤), 비닐 보내기를 전개했다. 최근에는 씨돼지 보내기 사업(8000여만원 상당)을 진행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연기된 상태다.

“얼마 전 북한에 신종플루 약을 보냈습니다. 지금 북한은 당장 배고파 병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식량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도시 근교에 사는 스님들이 산속에서 조용히 진리를 탐구하는 생활만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때 출가자가 힘이 돼야지요.”

생명나눔 활동

남북통일 운동 전개

무등산에 명상공간

스님은 “1980-1990년대 사회단체에 영향을 미쳤던 지선·진관 스님이있기는 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스님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불교단체의 활동도 왕성해지고, 시민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사회운동 한복판에서도 스님이 사회운동가가 아닌 수행자로 설 수 있는 데는 불교적 실천을 행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해인사에서 처음 출가해 채공(齋)에서, 부식물을 만들거나 재료를 아재를 관리하는 일과 공양주

를 살았다. 그러다 다시 며칠을 굶어 가며 찾은 순천 송광사에서 발심출가를 했다. 그곳에서 은사님 구산 스님을 만났다.

구산 스님의 “파리 같은 중노릇을 하지마라”는 가르침은 좋은 것만 좇는 파리의 습성을 경계한 일갈이었다. 현지 스님은 은사스님의 말을 담고 정진을 했다.

1982년 법타 스님(현 동국대 정각원장)이 주석하며 대웅전을 복원했다. 1988년 현지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은 후로 10여 채의 건물을 복원해 오늘날 무등산의 대표적 사찰로 자리 잡도록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바르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스님은 “불자들은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며 “인간에게 가장 보람된 일이 남을 돕는 것이다. 불교계가 사회봉사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원효사에 시민과 시민단체를 위한 명상의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스님이 구상 중인 명상공간이 만들어질 곳은 옛 무등산장이 있던 곳이다. 아직은 인력과 시설을 보충하기 위한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

“물질을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자신과 단체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거라 합니다.”

스님은 “무등산에 대중적 명상공간이 들어서면는 날, 광주 무등산의 새 명물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 개금불 1 비취옥불 1 백옥불



1 대나무숯불 1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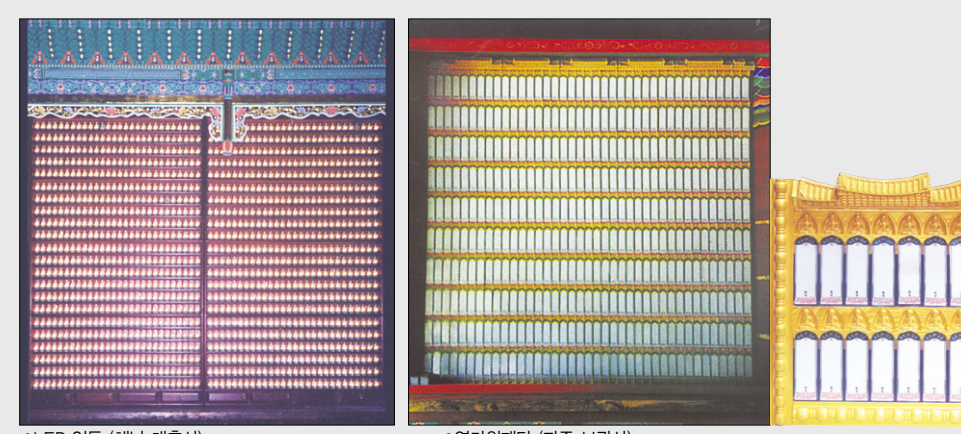
■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 연등전선 시공.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1 LED인등 (해남 대흥사) 1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1 금단동 1 비리동 1 영가등 1 금등

正宇 불교 예술원 (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산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